

보성군, '보성물' 2025년 연 매출 22억 원 돌파!

보성군이 운영하는 온라인 직거래 장터 '보성물'이 2025년 연간 매출액 22억 원을 돌파하며 전년 대비 12% 성장했다.

보성군은 지난 12일, '보성물'의 2025년 운영 실적을 종합 분석한 결과, 연초 설정한 목표를 웃도는 22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의 핵심 동력은 보성만의 차별화된 콘텐츠인 '말차' 중심 전략이다.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확산된 말차 소비 흐름에 맞춰 관련 상품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육성된 결과, 보성물 내 말차 제품 매출은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하며 전체 실적 상승을 견인했다.

또한, 보성물은 높은 재구매율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성장 구조를 구축했다. 명절 시즌 최대 20% 할인 행사를 비롯해 ▲

보성말차 중심 차별화 전략 주효... 전년 대비 12% 성장

2026년 더 강력한 이벤트와 차별화된 홍보로 도약 시동

신규 회원 가입 시 3,000포인트 지급, ▲ 구매 금액의 3% 적립, ▲출석 체크 포인트 지급, ▲후기 작성 포인트 지급 등 고객 친화적인 혜택과 이벤트를 통해 충성 고객층을 확보하고 있다.

온라인의 한계를 넘기 위한 오프라인 홍보 전략도 빛났다. 보성물 회원 유치와 지역 농특산물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전국 각지의 대규모 박람회에 참가하고, 수도권 등 주요 도시에서 직거래장터를 운영해 왔다.

소비자들이 현장에서 직접 제품을 보고 '정보무늬(QR코드)'로 바로 구매할 수

있는 '오투오투(Online to Offline)' 환경을 구축한 결과 전년 대비 회원 수가 10% 증가한 것도 매출 상승의 밑거름이 됐다.

보성군은 2026년 한 해를 '보성물 제2의 부흥기'로 정하고, 더욱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인플루언서 협업 마케팅을 통해 젊은 소비자층 유입을 가속화하고, 입점 업체에 대한 품질 관리와 상품 검증을 강화해 '보성물 제품'은 믿고 산다'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공고히 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보성물'에는 180여 개 업체, 1,000여 개 품목이 입점해 있으며, 청정



자연에서 키운 보성 차(茶), 기위, 꼬막, 녹돈, 울버살 등 지역 대표 특산물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만나볼 수 있다.

보성/김윤기 기자



담양대나무축제, '2026년 전라남도 대표축제' 선정

대나무 특화 콘텐츠와 가족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경쟁력 입증

담양군(군수 정철원)을 대표하는 문화관광축제인 '담양대나무축제'가 '2026년 전라남도 대표축제'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이번 선정으로 담양군은 축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비 1천만 원을 지원 받게 됐으며, 전라남도 대표축제로서의 브랜드 가치와 대외 인지도를 한층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지난 2025년 5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죽녹원과 관광제일 일원에서 열린 '제24회 담양대나무축제'는 '담양, 주목에 물들다'를 주제로 생태·전통·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차별화된 프로그램 선bio이며 전 세대를 아우르는 가족형 축제에 큰 호평을 받았다.

특히 담양의 대표 관광자원인 대나무를 중심으로 한 콘텐츠 구성이 눈길을 끌었다. 대나무의 역사와 문화를 담아낸 개막 공연을 비롯해 대나무

햇묵 타기, 대나무 소망등 달기, 운수 대롱 대박 터트리기 등 지역 정체성이 살아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해 축제의 완성도를 높였다.

또한 죽녹원과 메타랜드 입장권을 환급형 쿠폰으로 전환해 인근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관광객 만족도 제고라는 두 가지 성과를 동시에 거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해외 인플루언서와 주한 외신기자, 유학생 등이 개막 행사와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전 세대를 아우르는 가족형 축제에 큰 호평을 받았다.

특히 담양의 대표 관광자원인 대나무를 중심으로 한 콘텐츠 구성이 눈길을 끌었다. 대나무의 역사와 문화를 담아낸 개막 공연을 비롯해 대나무

담양/이종욱 기자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화순 고인돌 가을꽃 축제'가 전라남도가 선정하는 「2026 전라남도 대표축제」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선정은 축제의 콘텐츠 경쟁력과 향후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아 전라남도 차원의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받게 됐다 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라남도 대표축제는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우수 축제를 발굴·육성하고 전남 관광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매년 축제의 완성도와 발전 가능성을 종합

화순 고인돌 가을꽃 축제, '2026 전라남도 대표축제' 선정

세계문화유산 고인돌 콘텐츠 경쟁력 대외적 인정받아

적으로 평가해 선정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전라남도 축제심의위원회 주관으로 축제 기간 현장평가와 발표 심사 결과를 종합해 진행됐다.

지난 1월 8일 열린 발표 심사는 서면 자료 검토와 발표 평가를 병행해 시·군별 15분간 진행됐으며, 콘텐츠 차별성, 운영 역량, 지역사회 기여도, 안전관리 체계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평가했다.

화순 고인돌 가을꽃 축제는 세계문화유산인 고인돌 유적을 배경으로 가을꽃 경관과 역사·문화 콘텐츠를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차별화를 이뤄왔으며, 이번 대표축제 선정으로 브랜드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화순군은 이번 선정 성과를 바탕으로

축제 콘텐츠를 고도화하고,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 확대와 지역 주민 참여 강화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에 힘쓸 계획이다.

조형재 관광체육실장은 "이번 전라남도 대표축제 선정은 화순 고인돌 가을꽃 축제가 가진 발전 가능성과 콘텐츠 경쟁력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세계문화유산 고인돌과 아우러진 차별화된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화순/김종환 기자

전남 함평군은 '농업·농촌의 정책 및 군정 소식·지역 축제와 농특산물 등 함평의 매력과 다양한 소식을 온라인을 통해 생생하게 전달할 '제3기 함평군 함담 홍보단'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함담'은 '함평을 담다'는 뜻으로, 함평의 다양한 매력을 담아 생생하게 전달한다는 의미이다. 올해로 3기를 맞은 함담

"함평의 매력을 생생하게" 제3기 함담 홍보단 모집

홍보단은 ▲함평의 명소 ▲농장 ▲먹거리 ▲축제 ▲행사 ▲농업·농촌 정책 ▲농작물 재배 기술 등을 취재해 개인 블로그와 SNS를 통해 홍보 활동을 펼친다.

홍보단은 내일부터 활동하며 역량 강

화 교육 기회와 함께 소정의 활동 원고료 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모집 기간은 이달 30일까지며, 함평군에 주소를 둔 주민 중 블로그 또는 SNS 활용 능력이 우수한 1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신청 희망자는 함평군농업기술센터 영농지원과 경영개선팀에 신청서를 방문 제출하거나 전자우편(zzabar@korea.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문정모 농업기술센터소장은 "함평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지역의 가치를 널리 알릴 재능 있는 군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함평/전종훈 기자

강진군, 공공배달앱 '떡깨비' 총 매출액 110억 원 돌파

가맹 353곳·주문 42만건... 지역경제 살리는 알뜰소비

강진군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배달앱 떡깨비 할인이벤트를 2026년에도 이어갈 것을 예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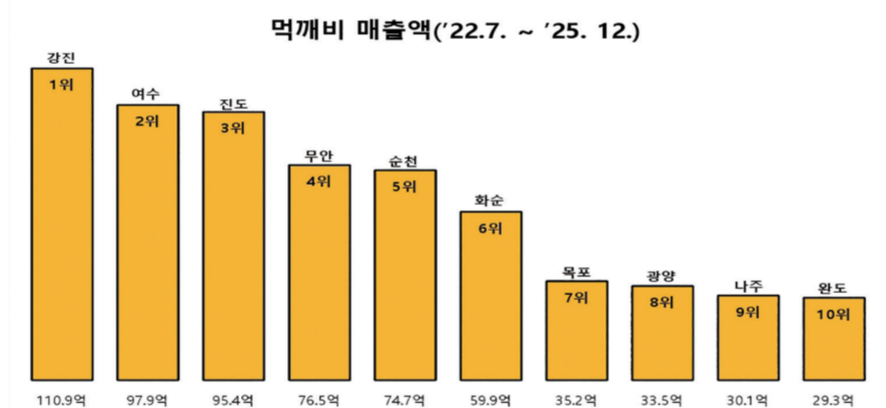
강진군에서는 산업구조 중 3차산업이 4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강진군에서는 3차산업의 주인공인 소상공인을 위한 배양책으로 공공배달앱 떡깨비와 지역 축제를 연계한 할인이벤트를 진행해 왔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외식할 수 있어 지역 내 소비를 일으

키고, 그 매출액은 다시 강진군 소상공인에게 수월하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떡깨비가 전라남도 민관협력형 공공배달앱으로 강진군에서 운영된 2022년 7월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관내 가맹점 353개소, 누적 회원 수 7,756명, 누적 주문 수 42만 3천여 건 등의 운영 실적을 기록해 지역민과 소상공인으로부터 받는 사랑을 입증했다.

더불어 강진군의 떡깨비 누적 매출액은 2025년 12월 기준 12월 110억 원을 돌



파하여 전라남도 내 굵직한 시군을 제치고 당당히 1위를 차지했다.

강진군은 2026년 공공배달앱 떡깨비 할인이벤트는 오는 2월 21일 토요일 개최

되는 '제54회 강진 청자축제' 기념 할인이벤트와 '주말 3천 원 할인이벤트'로 함께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진/손경설 기자

순천시, 순천을 알릴 시민 주인공 찾는다

22일까지 순천시 소셜미디어기자단 및 쇼츠크리에이터 모집

순천시는 시민의 시선으로 시정 소식과 지역의 다양한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 '2026년 순천시 소셜미디어기자단 및 쇼츠크리에이터'를 오는 2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은 글과 사진 중심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소셜미디어기자단과 짧고 임팩트 있는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쇼츠 크리에이터로 나누어 진행되며, 시민이 직접 참여해 순천의 정책·행사·일상 등 다양한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하고자 마련됐다.

소셜미디어기자단은 주요 시정 소식과 생활 정보를 직접 취재해 블로그 등 SNS에 콘텐츠를 제작·게시하며, 쇼츠크리에이터는 유튜브 쇼츠, 인스타그램 릴스 등 숏폼 플랫폼을 활용해 순천의 매력을 쉽고 재미있게 소개하는 역할을 맡는다.

모집 인원은 소셜미디어기자단 10명, 쇼츠크리에이터 5명으로 순천시에 관심이 있고 SNS 콘텐츠 제작에 열정이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선발된 인원은 2026년 한 해 동안 공식 기자단 및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 여러분이 직접 참여해 제작하는 콘텐츠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시민의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소통 창구가 된다"며, "다양한 개성과 시각을 가진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모집 인원과 지원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홍보실(061-749-5732) 또는 순천시 공식 홈페이지와 순천시 공식 SNS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순천/정성인 기자

이 작품은 국민 김라온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4 정부광고 크리에이티브 페스티벌 수상작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서울특별시교육청

독서로 찾는 강력하고 건강한 도파민

최근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색감처럼** 최대한 담백하게 사는 것. 타성에 젖지 않을 것. 내가 창조하는 삶을 살아갈 것. 미련을 남기지 않는 것. 지금처럼 버티다 보면 이 순간이 **늘그렇듯, 늘 주의를 기울일 것** 힘들수록 나 자신을 사랑할 것. **알려지고 싶은 사람에게도 포기하지 않고 잘 버티고 있다는 것** 내가 나를 알아봐 줄 것. **코자 볼 수 있는 것이니까** 나의 가치를 내가 찾을 것. **특별함을당신이 생각하는 것 보다 누구보다** **너의 우주와 예쁘다고 다 끌리는 게 아니고** **소중함을 좋은 생각으로 나를 채울 것** 마음먹기에 그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었는지 느껴진다. **우리는 몇 장짜리 책이까** **작정 무의미해 보이는 꿈같은 것** **가벼운 세 생김** **정말 멋진 나를 있는 건데** **알이다** **평범함의 더 크게 웃을 것** **포근한 이 들** **정말이다** **공전으로 맞물려** **일상을** **우어도 보는 것** **마음이 편해진다** **누가 뭐라고 해도 당당해질 것** **색감처럼** **만드** **기려 할 것** **몇 장이나 될까,** **잠시** **이 리우고** **현재의 미래와 걸러낼 수 없는 것이긴** **평범한 것은** **평화적인** **훨씬 강하다는 것** **평범한 것은** **고유의 색을 가능 하다.** **비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미래의 현재가** **가늠할 수 없는 사람,**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 되면** **기회는 위기 속에서 찾아온다는 건** **알 것** **엔 다 잘될 테니까** **내가** **이** **그 자체만으로도** **가** **좋은 거라면** **그** **은 언제나 우연치** **않**

독서는 우리의 문해력과 사고력을 키워주는 큰 자산입니다. 책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진정한 '나'를 만듭니다. 소셜 미디어와 숏폼에서 얻은 일시적인 자극 대신, 독서라는 건강하고 긍정적인 자극을 선택해 보세요.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